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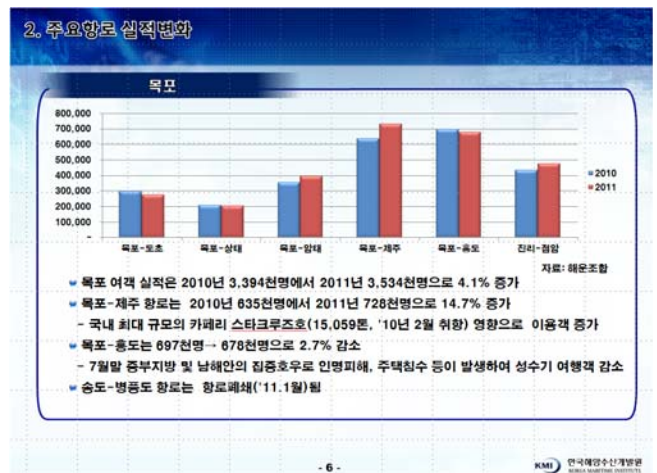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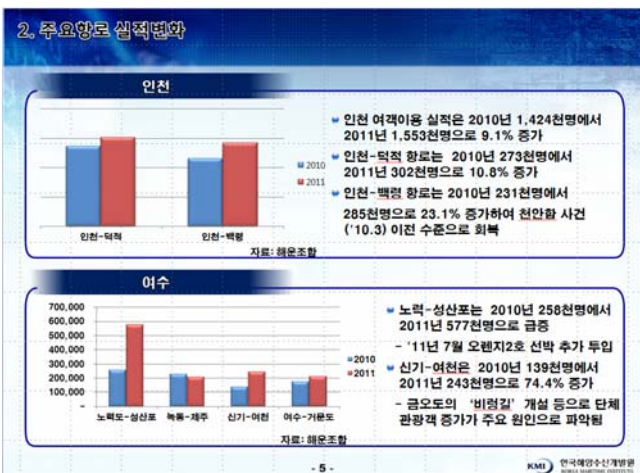
도서 여행객 이동실태 현황 분석

† 이 호춘 · 김 혜주*

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, *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

요 약 : 도서 여행객 이용실적을 월별, 일반인/도서민, 향로별로 살펴보고, 도서 여행객의 이동 목적 및 접근수단을 분석하였다. 도서 이용객들의 일통행량을 터미널별 평일 및 주말로 구분하여 각각 일반/도서민이 이용하는 비율을 분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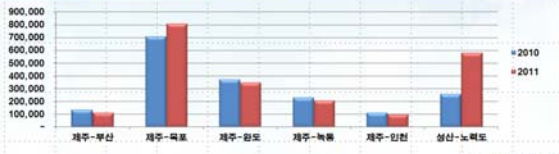
핵심용어 : 도서 여행객, 향로, 목적, 접근수단, 일통행량



† 교신저자 leechoon@kmi.re.kr
* 공동교신저자 hjukim@kmi.re.kr

2. 주요항로 실적변화

제주



- 제주 여객 실적은 2010년 1,813천명에서 2011년 2,175천명으로 20.0% 증가
(* 제주여객 실적은 모슬포/기포도/마라도 실적을 제외한 것임)
- 제주-목포 항로는 2010년 706천명에서 2011년 803천명으로 13.8% 증가
- 국내 최대 규모의 카래리 스타크루즈호(15,059톤, '11년 2월 취항) 영향으로 이용객 증가
- 제주(성산)-노력도는 258천명 - 579천명으로 급증
- '10년 7월 취항 이후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'11년 7월 오렌지2호 선박 추가

자료: 제주해운관리단

- 7 -

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2. 주요항로 실적변화

포항



자료: 해운조합

- 포항 여객이용 실적은 2010년 357천명에서 2011년 467천명으로 30.8% 증가
- 포항-울릉도 항로는 2010년 347천명에서 2011년 388천명으로 11.7% 증가
- TV방송('11년 3월 1박2일 울릉도편) 등의 영향으로 이용객 증가
- 울릉도-목도 이용실적은 2010년 9천명에서 2011년 48천명으로 급증
- 후포-울릉도 항로는 2011년 9월-2012년 3월까지 휴업

원도



자료: 해운조합

- 원도 여객이용 실적은 2010년 1,991천명에서 2011년 2,089천명으로 4.9% 증가
- 청산-원도 항로는 2010년 398천명에서 2011년 571천명으로 43.7% 증가

- 10 -

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2. 주요항로 실적변화

통영



자료: 해운조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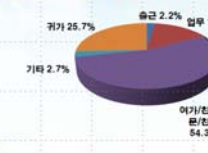
- 통영-매곡 항로는 2010년 195천명에서 2011년 334천명으로 71.5% 증가
- 섬 지역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항로로 실적 크게 증가
- 통영-의창은 366천명에서 387천명으로 5.8% 증가
- 안골-간곡 항로는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선사패업('11년 1월), 안골-구영은 항로폐쇄('11년 1월)로 2011년 실적 없음

- 8 -

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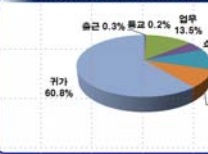
3. 도서 여행객 목적 (2010년 기준)

도서 여행객 출항 목적



- 도서여행객의 출항 목적은 여가/친지방문/친교가 54.3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
- 다음으로는 귀가 25.7%, 업무 14.9% 순임

도서 여행객 입항 목적



- 도서 여행객의 입항목적은 주로 귀가로 60.8%를 차지함
- 다음으로는 업무 13.5%, 여가/친지방문/친교 11.1%임

자료: 2011년 국가교통DB사업(한국해양수산개발원)

- 11 -

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2. 주요항로 실적변화

군산



자료: 해운조합

- 군산 여객실적은 2010년 399천명에서 2011년 397천명으로 0.6% 감소
- 군산-광주 항로는 9.0% 증가 (22천명 - 24천명)
- 군산-비안도 항로는 2010년 159천명에서 2011년 152천명으로 4.3% 감소

대전



자료: 해운조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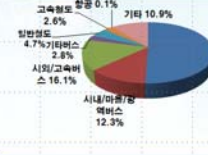
- 대전 여객실적은 2010년 455천명에서 2011년 600천명으로 31.5% 증가
- 대전-외연도 항로는 2010년 57천명에서 2011년 65천명으로 14.0% 증가
- 대중매체를 통한 실여행 홍보, 지자체 관광지 정비 사업 등의 영향으로 일반인 실적 증가

- 9 -

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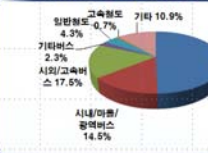
4. 터미널 접근수단 (2010년 기준)

터미널 접근수단 (출항)



- 출발지에서 터미널 접근수단은 승용차 50.6%, 시외/고속버스 16.1%, 시내/마을/광역버스 12.3% 순임
- 버스이용이 약 19%이며, 일반철도 6.0%, 고속철도 이용은 2.3%

터미널 접근수단 (입항)



- 입항시 터미널 접근수단은 터미널에서 내륙 도착지로 이동할때 수단으로 승용차가 49.6% 차지
- 시외/고속버스 17.5%, 시내/마을/광역버스 14.5%를 차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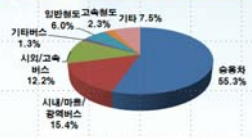
자료: 2011년 국가교통DB사업(한국해양수산개발원)

- 12 -

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4. 터미널 접근수단 (2010년 기준)

목포터미널 접근수단 (총량)



▶ 목포터미널 접근수단은 승용차 55.3%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
- 버스이용이 약 19%이며, 일반철도 6.0%, 고속철도 이용은 2.3%

목욕터미널 접근수단 (총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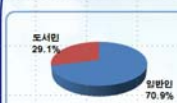


▶ 목욕터미널 접근수단은 시외/고속버스 50.1%, 승용차 40.0%를 차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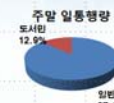
자료: 2011년 국가교통DB사업(한국해양수산개발원)

5. 주요항로 평일-주말 일통행량(2010년 기준)

목포연안여객 일통행량



목포-홍도



목포-도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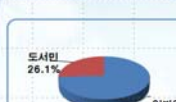


▶ 목포 연안여객 일통행량 비중은 일반인 70.9%, 도시민 29.1%
▶ 목포-홍도 항로 평일 일통행량 비중은 일반인 74.6%, 도시민 25.4%
▶ 주말 일통행량은 일반인 실적 증가로 일반인 87.1%, 도시민 12.9%
▶ 목포-도초 항로는 평일 일통행량 비중은 도시민 65.4%, 일반인 34.6%
▶ 주말도 평일과 유사

자료: 2011년 국가교통DB사업(한국해양수산개발원)

5. 주요항로 평일-주말 일통행량(2010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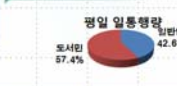
인천연안여객 일통행량



인천-덕적



인천-연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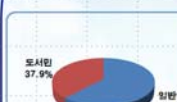


▶ 인천 연안여객 일통행량 비중은 일반인 73.9%, 도시민 26.1%
▶ 인천-덕적 항로 평일 일통행량 비중은 일반인 65.7%, 도시민 34.3%
▶ 주말 일통행량은 일반인 실적 증가로 일반인 60.8%, 도시민 39.2%
▶ 인천-연평 항로는 평일 일통행량 비중은 도시민 57.4%, 일반인 42.6%
▶ 주말도 평일과 유사

자료: 2011년 국가교통DB사업(한국해양수산개발원)

5. 주요항로 평일-주말 일통행량(2010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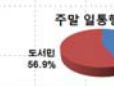
완도연안여객 일통행량



청산-원도



하음포-정벌



▶ 완도 연안여객 일통행량 비중은 일반인 62.1%, 도시민 37.9%
▶ 청산-원도 항로 평일 일통행량 비중은 일반인 72.9%, 도시민 27.1%
▶ 주말 일통행량은 일반인 실적 증가로 일반인 85.5%, 도시민 14.5%
▶ 화음포-정벌 항로는 평일 일통행량 비중은 도시민 67.3%, 일반인 32.6%
▶ 주말도 평일과 유사

자료: 2011년 국가교통DB사업(한국해양수산개발원)

5. 주요항로 평일-주말 일통행량(2010년 기준)

대전연안여객 일통행량



대전-장고도



안흥-가의도



▶ 대전 연안여객 일통행량 비중은 일반인 71.1%, 도시민 28.9%
▶ 대전-장고도 항로 평일 일통행량 비중은 일반인 48.8%, 도시민 51.2%
▶ 주말 일통행량은 일반인 실적 증가로 일반인 78.6%, 도시민 21.4%
▶ 안흥-가의도 항로는 평일 일통행량 비중은 도시민 65.5%, 일반인 34.5%
▶ 주말은 일반인 비중이 81.2%로 증가

자료: 2011년 국가교통DB사업(한국해양수산개발원)

6. 결론 및 시사점

결론

- ▶ '11년 전체 도서 여행객 이용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0.3% 감소(14,306천명 → 14,266천명)한 것으로 나타나, 월별, 일반인/도시민, 항로별 실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
- '11년 1월-3월, 7월-9월, 11월 등 7개월 동안 '10년보다 이용객 감소
- 일반인 이용 실적은 1.2% 감소한 반면, 도시민 이용 실적은 2.5% 증가
- 인천-백령, 노력-청산, 여수-금오, 통영-매물항로 등은 여객이 크게 증가한 반면, 안골-간곡, 안골-구영 등의 항로는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인해 폐쇄됨
- ▶ 도서 여행객의 출항 목적은 여기/친지방문/친교가 54.3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, 도서 여행객의 입항목적은 주로 귀가로 60.8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
- ▶ 출발지에서 터미널 접근수단은 승용차 50.8%, 시외/고속버스 16.1%, 시내/마을/광역버스 12.3% 순서를 차지함

시사점

- ▶ 연안여객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해서는 홍보 및 지자체 관심이 중요
- 항로별로는 섬여행 홍보 및 1박2일 등의 지사파 방송방영, 지자체 선박정비 사업 등의 영향으로 도서 여행객 증가함
- ▶ 도서 여행에도 관광 트렌드 도입 필요
- 신기-여천 항로의 경우 울레길, 울레길같은 비경길 개설 등으로 단체관광객이 급증하였음
- 오토 캠핑, 트레킹 등을 병행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